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민간방역체계 운영

1. 머리말

우리 양돈산업은 현재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최대수출국인 일본이 2000년 돼지콜레라 비발생국임을 선언하고,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는 나라나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완전히 박멸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우리 양돈산업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양돈업계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통일된 지침과 계획에 따라 각각의 분야에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토록 해야겠으며, 앞으로 1년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돼지콜레라를 박멸하기 위해 양돈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집중시켜야만 하겠다.



윤희진 집행위원장
(사)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2. 국내의 돼지콜레라 발생동향

국내의 돼지콜레라 발생동향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예방접종지원, 살처분 보상금지원 등 방역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표1>과 같이 매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 이어 7월

◇...본 고는 본회와 (사)한국양돈연구회가 지난 10월 15일 충남대학교에서 공동주최한 「21세기 돈육산업의 비전제시와 전략」 세미나에서 윤희진 집행위원장(돼지콜레라 박멸비상대책본부)이 발표한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입니다...편집자주◇

말에도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신원2리 1개 농가에서 발생된바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모든 양돈농가, 방역관련 기관과 단체, 관련업계가 다함께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중요한 때이다.

'98년 이후의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은 11건중 9건이 경기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었고, 충남 논산 1건, 제주도에서 1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최근 4년간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을 보면 양돈농가수가 많은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었고, 충남과 경남 지역도 발생이 많으므로, 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위험지역을 설정하여 집중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3. 일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일본국과의 수입위생조건의 개정된 내용을 보면, 돼지콜레라 발생 상황을 즉시 일본국 가축위생당국에 통지해야 하고, 종식된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일본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돼지생산농장은 발생농장 중심 반경 10km이내 지역이 아니어야 하고, 수출용 돈육은 출하전 1년간 돼지콜레라 비발생농장에서 생산된 것을 조건으로 하며, 수출용돼지고기 생산용시설(도축장, 육가공장 등)은 이동제한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위생조건을 강화하여 시행중이다.

“이동제한지역”이란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 지역으로서 돼지와 바이러스 전파 우려 물건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금지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이동제한 기간은 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이내 지역은 최종발생시 조치완료 후 40

일간, 3km이상 10km이내 지역은 15일간이며, 이 기간동안 수출금지는 물론 타지역으로의 이동을 제한받게 되고,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없도록 강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조건은 양국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일본의 돼지콜레라 박멸정책

가. 돼지콜레라 발생동향

일본의 돼지콜레라 발생은 1960년대에 많이 발생하였으나 예방접종을 강화한 이후 점차 감소하였고, 특히 1993년 이후 현재까지 7년간 계속 비발생으로 이미 돼지콜레라 종식단계에 와있다고 판단한다.

나. 일본의 박멸정책과 우리의 추진방향

일본은 '96년도 박멸대책 5개년 계획 수립 이후 도도부현 및 위생지도협회가 주체가 되어 예방접종 철저, 야외 바이러스 존재 확인 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방접종 금지 정책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이다. 예방접종 금지 결정은 1차적으로 도도부현이 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4월부터 3개현이 접종을 중지하였으며, 다른 도도부현도 2000년 중에 모두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계획대로 전면 중지결정을 하고 동 질병을 해외전염병으로 취급할 경우 방역단계에 따라 돼지고기 수입검역을 더욱 강화 할 것이며, 동 질병이 발생하거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국가로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할 계획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도 100%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2000년 10월부터 예방접종을 중지하여 2001년 4월에 청정화 선언을 할 수

<표1> 연도별 돼지콜레라 발생상황

구 분	'94	'95	'96	'97	'98	'99.8
발생건수	19	14	39	20	6	5
발생두수	1,525	1,037	4,498	1,912	985	1,683

〈표2〉 양돈관련산업 시장규모

○양돈관련 총 시장규모는 9조2,645억원

○양돈관련 종사자는 73,000명(28천개소)로 추정

구 분		금액(원)	산 출 근 거
양돈 농가	비 육 돈	2조8,000억	=14,000천두(연간 출하두수)×20만원(두당 판매가격)
	종 돈	750억	=788,000두(8개월이상 모돈)×0.25×350천원(종돈가격) = 45,174두(8개월이상 옹돈)×0.25×500천원(종돈가격)
	소 계	2조8,750억	
관련 업계	사 료 업 계	1조7,410억	=4,917,762톤(연간 생산량)×354천원(사료가격)
	동 물 약 품 업 계	2,500억	=14,000천두(연간 출하두수)×2,000원(두당 방역비) =903,433두(종돈 두수)×15,000원(두당 방역비) =사료업체(사료회사 860억원, 주문사료 820억원) =기타(L라이신 등)
	축산기자재 업 계	2,500억	=300개 업체(시설업체)×5억(연간 매출액) =발효기계 업체(1,000억원)
	소 계	2조2,410억	
유통 업계	운 송 업 계	380억	=12,630천두(도축두수)×3,000원/두×50%(분담률)
	도 축 업 계	1,900억	=12,630천두(도축두수)×15,000원(두당 도축비)
	가 공 업 계	3,160억	=12,630천두(가공두수)×15,000원(두당 가공비) =12,630천두(가공두수)×10,000원(부산물 비용)
	유 통 업 계	3조2,220억	=644,392톤(정육 내수유통량)×5,000원/kg
	소 계	3조7,660억	
수출 업계	부 분 정 육	3,750억	=312,513천\$(수출액)×1,200원(원/달러)
	부 산 물	75억	=6,169,136\$(수출액)×1,200원(원/달러)
	소 계	3,825억	
합 계	9조2,645억		

주) 산출기준 연도 : '98년도(한국육류수출협회 자료)

전에 획기적인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본다.

'98년말 기준으로 국내 양돈관련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9조 2,645억원으로 추산되며, 양돈관련 종사자는 약 28천개소에 73천명으로 추정되는 큰 규모로 성장, 발전되었다.〈표2 참조〉

나. 돈육 대일수출동향

그동안 돈육 대일 수출동향을 보면, 지난 '93년에 1만톤을 넘어선 이후 '95년까지 비슷한 물량을 수출하다가 '96년에 36천톤으로 증가된 이후 '97년 2월말 대만의 구제역 발생으로 일본수출이 중단되면서 국내의 돈육수출이 급증되어 지난해에는 88천톤을 수출하였고 〈표3〉, 이 추세에 따라 냉동육 수출 위주에서 냉장육

수출로 점차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 돈육 수출 중단시의 피해

돈육 대일 수출물량 확대에 따라 국내 양돈업계 기반확대와 관련산업계의 성장 발전이 가능했으나, 만일의 경우(상당히 조심스런 판단이 필요하나) 일본이 청정화 선언후까지도 국내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피해가 지속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대일 돈육 수출이 중단될 경우에는 내수용 돈육 공급물량이 과다함에 따라 생산비 이하로 거래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양돈업을 포기하는 농장이 속출하고 배합사료, 동물약품 등 양돈관련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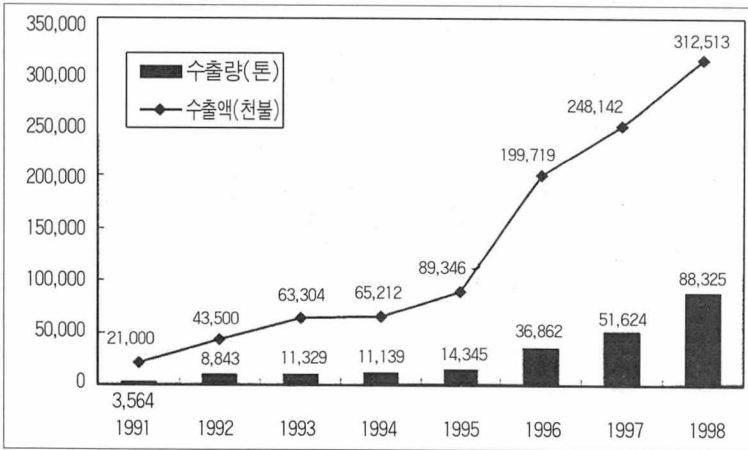
특히, 돼지고기 수출시장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여건에서는 국내의 돼지콜레라 조기 박멸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조기박멸여부가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직결되어 있다고 본다.

5. 대일돈육수출 중단시의 영향

가. 양돈산업 시장규모

국내의 돼지콜레라 조기박멸을 위하여 정부와 양돈업계 등 민간단체가 긴밀히 협조하여 계획대로 우리나라도 2001년 4월에 청정화를 성공하게 된다면 수출물량의 지속적인 확대로 양돈산업 발

〈표3〉 대일 돈육수출 현황(1991~1998년)



〈표4〉 돼지고기 수출중단시 미치는 영향

구분	단위	'98년	수출중단시	증감
사육두수	천두	7,543	5,098	△2,445
배합사료	천톤	4,917	3,323	△1,594
배합사료 매출액	백만원	1,425,930	963,670	△462,260
생돈 1두당 (110kg 기준)	원	189,519 ('99.7:232,100)	165,466	△24,053 ('99:△66,634)
생돈 1kg당 (110kg 기준)	원	1,723 ('99.7:2,100)	1,504	△219 ('99:△596)
지육 1kg당 (74.8kg 기준)	원	2,534 ('99.7:3,250)	2,212	△322 ('99:△1,038)

* 수출중단시 ⇒ 사육두수 : 2,445천두 감소
 배합사료 : 1,594천톤/년 감소
 배합사료 매출액 : 4,622억원 감소

산업이 연쇄적으로 크게 위축될 것이며, 양돈농가 뿐 아니라 양돈산업의 성장이 정체되어 국가 경제에도 큰 피해가 파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돈농가와 관련산업계의 생산액 감소로 인한 피해와 돈사시설과 도축·가공시설 등의 폐기로 인한 손실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 수출 중단시 미치는 영향을 '98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육두수는 2,445천두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배합사료 생산량이 약 1,594천톤이 감축되어 매출액도 4,622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표4 참조〉

6. 향후 대응방향 : 돼지 콜레라 조기박멸 추진

가. 현행 돼지콜레라 방역 대책의 보완해야 할 점

1) 일선 시·군 단위의 방역 전담인력부족 보완 시급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일선 시·군의 경우 가축방역 담당 인력이 감축되어 거의 없는 지역이 많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축산진흥연구소 등)의 경우에도 검진사업, 혈청검사, 농장방역관리 등 각종 방역사업을 담당하므로 실제 양축농가를 지원해야 할 방역지원 인력이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2) 돼지콜레라 발생시 신고 기피 및 농장방역관리 미흡

돼지콜레라 발생신고시 사육 중인 돼지를 타지역으로 몰래 불법유통 시키는 사례가 많아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많으며, 휴업·폐업하는 농장의 떨어돼지를 값이 싸다는 이유로 중간상을 통해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 전염병 전파요인이 되고 있다.

3) 위험지역 및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방역집중관리 미흡

일시적 예방접종지원반 운영만으로는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관리가 안되고 있으므로 시·군 지역별로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조사 및 확인점검체계를 보완해서 방역관리 전담자로 하여금 주기적, 지속적인 책임관리가 우선 보완되어야 한다.

4) 박멸대책에 양돈관련단체의 동참분위기 및 사망감 제고 필요

돼지콜레라 근절이 정부의 책임만이 아니라, 양돈농가 자신 및 관련단체가 책임의식을 갖고 동참토록 추진해야 하고, 일방적인 관 주도 대책에서 민간자율 방역체계와 협조 보완해야 하며, 방역선진국들의 경우 민·관 협력에 의한 방역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돼지콜레라 청정화 목표를 성공시키고 있다.

이제 가축방역사업을 관 주도에서 민간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나.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 출범

돼지콜레라 조기근절을 위한 생산자단체 중심의 민간방역체계를 구축하여 대책본부가 농가방역 실태조사, 방역홍보·교육 및 양돈농가 예방주사·채혈검사 업무를 지원하여 정부의 방역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축협·양돈협회·사료업체·동물약품업체 등 양돈산업관련 22개 단체와 업계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양돈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 추진목표 〉

- 양돈산업 관련단체 공동참여로 돼지콜레라 조기박멸
- 일선 시·군 돼지콜레라 방역전담인력 지원

다. 사업추진 일정

□제 1 단계 : 대책본부 조직정비, 박멸기금 확보

- 기간 : 1999. 5 ~ 7월(3개월)

□제 2 단계 : 100%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업무지원

- 기간 : 1999. 8. 1 ~ 2000. 8. 31(13개월)

- 농가 방역관리 실태조사, 채혈검사 확대실시

- 시·군방역단 전담요원 배치 운영(114명)

□제 3 단계 : 청정화 확인단계

-기간 : 2000. 9. 1 ~ 2001. 3. 31(7개월)

-지역별, 농장별 혈청검사 집중실시, 예방접종 중지

-야외바이러스 검색강화, 청정화 홍보·교육

5. 맺는 말

모든 축종의 각종 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책 책임을 정부가 모두 감당하기에는 방역담당 인력이나 재원문제로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 바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언가 새로운 전환을 시도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관 주도에 의한 방역정책상의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보완해야겠고, 국내 방역사상 최초로 민간주도의 대책본부가 출범하였으므로, 산·학·관 협동으로 다함께 참여하여 가장 효율적인 박멸대책을 추진해야만 할 때이다.

정부의 방역대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민·관 역할분담, 양돈농가의 책임부여, 민간방역체계 운영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야할 때라고 본다. 정부의 획기적인 돼지콜레라 박멸 지원대책 뿐만 아니라 양돈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의식으로 지속적인 방역지원이 있어야만 국내에서 돼지콜레라 조기근절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돼지콜레라 청정화!

우리 모두 함께 조금만 더 힘을 합하여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특히 양돈농가 스스로 돼지콜레라를 근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내 농장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양돈농가와 관련업계가 100%예방접종에 참여하도록 서로 독려해서 공동방역이 바로 나의 일이라는 자세가 가장 필요한 때이다. **양돈**